

“무더위 타파” 강진군, 휴가철 물놀이 명소 본격 개장

내달 18일까지 V랜드·초당림·석문공원 물놀이장 등 응급구조사 배치 등 이용객 안전 만전...각종 이벤트도

강진군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20일부터 8월18일까지 강진읍 V랜드, 칠량면 초당림, 도암면 석문공원 물놀이장을 일제히 개장한다. 국립공원 월출산 경포대 계곡 일부도 지난5일부터 한시 허용에 돌입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물놀이장 개장 이벤트로 각 장소마다 선착순 100명씩 총 300명에게 스마트폰 방수팩과 비치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강진을 보은산 자락에 있는 V랜드는 워터슬라이드를 정비해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물놀이의 정수를 선사하며, 도암면 석문공원은 에어바운스와 조합 놀이대 등을 조성해 어린이 고객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꾸며졌다.

칠량면에 있는 초당림은 4만5천 그루의 편백나무 숲이 제공하는 맑은 공기와 산책길에 피톤치드의 상쾌함을

제공하는 등 개성만점 3곳 3색의 물놀이장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안전관리요원, 감독관 등을 배치해 이용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45일간 한시적으로 월출산 경포대 탐방로 입구부터 경포대 삼거리 바깥재 방향 지점까지 300m가량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시원한 계곡물에 발담그고 잠시 신선놀음을 즐기는 특별한 여유를 제공한다.

오는 26-28일 가우도 모노레일 대합실 일원에서는 ‘2024 가우도 레저투어’ 행사를 갖는다. 가우도는 쥘트랙, 모노레일, 제트보트, 바다낚시 등 다양한 해양레저 체험들을 즐길 수 있어 해양레의 메카로 불린다. 행사 3일 동안에는 추가료 에어 워터슬라이드, 워터폴



▶강진군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해소해 줄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사진은 초당림 물놀이장 전경(오른쪽)과 물놀이하는 어린이들 모습. <강진군제공>

장, 모래놀이터, 요트 체험과 함께 인공 백사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다양한 파격 할

인 이벤트다.

사전 예약자 1천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강진사랑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까지 네이버

폼 또는 SNS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2만5천원인 쥘트랙은 1만5천원, 3만원인 제트보트는 2

만2천원으로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당일 군내 소비 영수증을 지참한 사람에 한해 요트 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물놀이장을 찾는 이용객의 상당수가 어린이들이지만 물놀이 안전 수칙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며, 놀이 기구, 샤워실·화장실 등 관련 시설의 안전 점검과 청결 유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 고향사랑기부, 1년6개월 만 1만건 돌파

지정·상호기부·다양한 답례품 성과 이끌어

영암군은 18일 “고향사랑기부 건수(지난 11일 기준)가 1년6개월 만에 1만22건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부 1만건 달성을 위해 영암군은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4일부터 기부금을 받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영암 맘(mom) 안심 프로젝트’ 지정 기부를 시작해 76건에 750만 원 가량 모금했다.

지난달부터는 내가 추천한 지인이 영암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추천자에게 기부 금액의 1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영·친·소’ 이벤트도 진행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부 이벤트를 만들어 다양한 기부를 이끌어 온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공직자들도 다른 지자체와 상호기부로 4천만원 가량의 기부를 이끌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영암·고흥·무안·신안 농·축협 임직원이 4천만원 규모의 상호기부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에 고마움을 전하는 영암군 답례품도 기부 1만건 돌파에 큰 역할을 했다.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등록한 결과, 현재 총 116개 답례품 목록을 갖고 있다. 또 지난 달 영암군은 답례품 공급 업체를 추가 선정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도 넓혔다.

답례품으로 ▲도자기 컵 ▲유골함 ▲부모님 일상 영상 ▲2구 용기 세트 ▲영암 귀리부인세트 ▲분도미 5종 세트 ▲신동진 쌀 10kg 상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에 기부해 준 시민들 덕분에 1만건 돌파를 이룰 수 있었다”며 “모아진 기부금은 기부자의 정성에 부합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탄소흡수원 ‘맹그로브’ 재배시험 식재

이식 후 지속 모니터링...블루카본 특화사업 추진

신안군은 18일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능과 저장 능력이 뛰어난 블루카본(BLue Carbon)의 대표수종인 ‘맹그로브(사진)’를 최근 도초면 죽연리 갯벌에 종자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도초도는 천혜의 청정해역의 해양생물자원과 육상 생물자원의 중요지역으로 서식지 보호지역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보존지구, 자연마을지구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도별 중점관리를 시행 중이다.

또한 신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및 신안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재배시험에서는 일본산 맹그로



브 종자 120개체와 베트남산 400개체 등 총 520개체를 죽연리 갯벌에 시험 식재했다.

현재까지 현지 적응시험을 위해 이식된 맹그로브 종자는 잘 생육하고 있

으며, 식재 후 생장 특성과 지역 갯벌과 기후환경에서의 적응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동근 맹그로브(Kandelia obovata)는 최저 기온이 -10℃ 이상인 곳에서만 생육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협소하므로 외래식물로서 생태계를 교란할 염려도 없다. 맹그로브가 국내 갯벌과 섬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섬으로 이뤄진 신안의 탄소흡수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책 및 과학적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나 탄소중립에 있어 숲과 나무는 지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탄소흡수원의 발굴·확충이 필요하다”며 “맹그로브 도입을 통해 환경부 탄소중립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블루카본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함평군, 6기 청렴명예감사관 위촉

2년 임기 11명 위촉...청렴 함평 실현 의지 다짐

함평군은 18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제6기 신규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11명의 명예감사관은 지역 사정에 밝고 사회적 신뢰가 두터운 이들로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다.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되는 명예감사관은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 공사현장 점검 참여, 군정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감사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정영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

원 전문가를 초빙해 ‘청렴명예감사관의 역할과 옴브즈맨’이라는 주제로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명예감사관들이 청렴사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준 노력의 결실”이라며 “민간의 협력 동반자로서 명예감사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영광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11월30일까지 5개월간 불법행위 철저 조사

영광군은 18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약 5개월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6일 농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농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 및 농업법인의 불법적 농지 소유 뿐만 아니라 축사·버섯재배사·곤축사육사로 위장해 농사는 안 짓고 태양광 발전시설로 쓰는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이뤄진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최신 영화상영’ 무안작은영화관 문 연다

26일 본격 운영...대형 극장가 60-70%수준 관람료

무안군에 최신 영화를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영화관이 생긴다.

18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 복합문화센터 6층에 들어서는 ‘무안작은영화관(사진)’이 오는 22일 개관식을 갖고 2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무안작은영화관은 1관 77석, 2관 106석 등 총 183석 규모의 상영관과 2D뿐만 아니라 3D 입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영상 장비를 갖추고 있다. 팝콘, 음료수, 커피 등 다양한 메

뉴를 즐길 수 있는 매점도 함께 운영한다. 관람료는 2D 영화 7천원, 3D 영화 9천원으로 대형 극장가의 60-70% 수준의 저렴한 관람료로 전국 동시 개봉 최신영화를 즐길 수 있다.

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관람권 예매는 인터넷(무안작은영화관 검색)과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개관식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참석자 대상 군민 초청 시사회가



열린다. 또한 23-24일 읍·면별 초청 대상자와 관내 어린이집 원아, 25일 군민 선착순 현장 무료 발권을 통해 시사회가 진행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영화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무안작은영화관을 작지만 큰 영화관으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성평등시민강좌성료

‘공감 한스폰, 인문 두스폰 젠더레시피 V’ 호응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는 “최근 전남도민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공감 한스폰, 인문 두스폰으로 만드는 젠더레시피 V’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번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를 통해 성매매가 왜 성착취인지와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폭력의 진부함’의 저자 이리영 작가를 초청해 성평등에 대한 인문학 적 접근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시민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은 “성매

매 근절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해야겠다”, “성매매와 인신매매가 연관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과 평가를 더 깊어보고 싶고 대한민국이 성매매 산업 6위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강좌에 대한 솔직한 후기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진행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공감 한스폰, 인문 두스폰으로 만드는 젠더레시피 V’는 2024 전남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목포=정혜선 기자

